

재독한국여성모임3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합니다. 나도 모두 함께 축하.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니 강산이 세 번도 더 변한 세월
우리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눈물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의 서로 돕는 여성회
부재엄마 아쉬워 아이들은
SCHEISS FRAUENGRUPPE!
노동자로 정의로 양심으로
동일방직, YH, 원풍노조, contorl-deta, ADLER
조국의 여성노동운동 연대할 때
빨갱이로 몰리고, 비난 받으며 고립되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스쳐가 흔적남기고
강원예, 오선희, 오영이, 박소은, 이덕희, 김진향, 최영숙,
강여규, 양광자, 손덕수,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성자, 김정옥, 유기엽, 김길순, 김영희, 부정숙
이 분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재독한국여성모임
해마다 세미나 2번씩 하는 교육장으로
언제나
민주의, 존엄의, 평등의, 평화로

그러나
피터지게 싸우며 지나간 30여년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남편은 이불을 공중으로 내 던지고,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그러나
곳 세어라,
재 독 한 국 여 성 모 임

타향에서 살며
우리말로, 우리글로, 우리 음식 먹으며,
“한국여성”이라는 것이 몹시 중요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타향에서 정체성유지
지속하기 어렵더라도, 자부심으로,
나태할 때, 채찍으로
친정집 역할 하는
재 독 한 국 여 성 모 임

지금
30주년
병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의
시집살이를 맞아야 여성이 제구실 한다던
한국의 풍습보다 더 더욱 황무지를 달려온 우리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홀홀 털어버리고, 가볍게, 한가롭게, 자유롭게
행복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내가 사는 곳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는 이를 사랑하며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생명까지, 생각하며
힘없는 자를 생각해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행복한
서로 돕는 여성모임 만세
재 독 한 국 여 성 모 임 만만세

2008. 10. 09 희망의 땅 함양에서 한 뫼 박 재신